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5월 5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한영,영한 번역을 할 수 있다.
  2. <세상을 밝힌 꿈>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 시 한편을 골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

교재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6-1, 초등 국어 6학년, 100대 민족문화 상징자료,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김소월 <진달래꽃> 감상하고 번역본으로 읽어보기
2교시 10:20-11:20	번역대회 (영한, 한영)
점심 11:20-11:45	바자회
3교시 11:45-12:40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무리 문제 풀기 <세상을 밝힌 꿈> 소리내어 읽고 내용 이해하기

### 숙제

1. 8급한자 쓰고 문제 풀기
2. 관용어 읽고 문제 풀기
3. 시 한편 영어로 번역한 것 수정하기
4. 읽기 자료 읽어오기
5. 어휘공부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번역대회에 열심히 임해준 학생들 수고했습니다.

### <봄학기 행사일정 >

5월 19일 : 우리말 평가 준비 자료 배부  
6월 2일,9일 : 우리말 평가  
6월 16일 : 봄학기 종강식

### 세상을 밝힌 꿈 <공부할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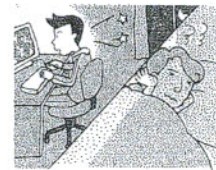
- 시력을 잃다 : lose one's sight. 예문) 축구공에 세게 맞아 시력을 잃었다.
- 뇌졸중 : stroke 예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 함께해요



크리스 씨는 요즘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골칫거리 1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여자 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는 여자 친구가 전화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_\_\_\_\_

골칫거리 2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라서 망설여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_\_\_\_\_

골칫거리 3 기숙사 룸메이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_\_\_\_\_



여러분의 골칫거리는 무엇입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들어 보세요.

한 걸음 더

- \* 골치(를) 앓다(=)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 \* 골칫덩어리(⇨) 말썽꾸러기  
매일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조는 골칫덩어리는 누구일까요?
- \* 아프다 ㉠
  -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요.
  -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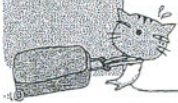
그래요.  
아자! 아자!  
파이팅!

덕분이에요.

그리고 입사 시

까 힘내세요.  
게 새해를 맞이

들어지다  
자꾸



## 대화



- 제 니 : 민수 씨, 아까 영화 보다가 졸았지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 민 수 : 아뇨, 며칠 전부터 새벽에 아버지하고 조깅을 시작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졸려요.
- 제 니 :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건강에도 좋고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 민 수 : 그건 그렇지만 새벽마다 5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아참, 제니 씨도 같이 조깅하는 게 어때요?
- 제 니 : 미안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미인은 잠꾸러기잖아요. 호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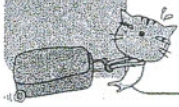
★ 굴뚝같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상황대응

-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참기로 마음먹었다.
-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 가: 제가 만든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
- 나: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 새 어휘의 문형

- ☐ 졸다    ☐ 새벽    ☐ 조깅    ☐ 졸리다    ☐ 굴뚝    ☐ 같다    ☐ 미인
- ☐ 잠꾸러기    ☐ 참다    ☐ 사과하다    ☐ 다이어트    ☐ -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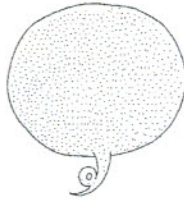


##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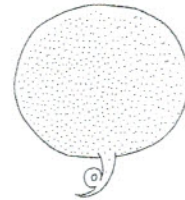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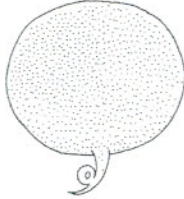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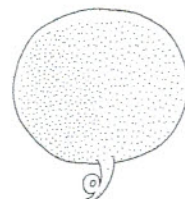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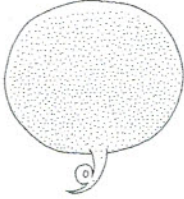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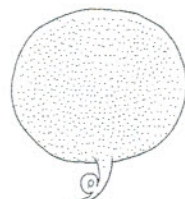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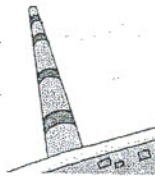
5



6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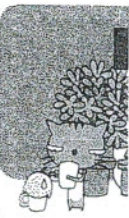


- \_\_\_\_\_
- \_\_\_\_\_
- \_\_\_\_\_

한 걸음 더

같다

- 외모는 다르지만 성격은 같은 두 사람이에요.
- 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면 좋겠어요.
- 곧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준비하세요.



보

보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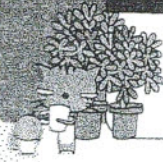
5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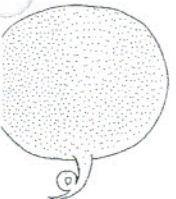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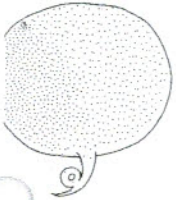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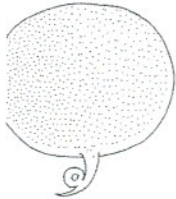
가:

나:



## 연습해요

굴뚝갈을까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굴치가 아프다

굴치덩어리

굴뚝갈다

1 가: 이번 휴가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어때요?

나: 가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2 가: 요즘 신문에는 \_\_\_\_\_기사가 너무 많아요.

나: 맞아요.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3 가: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네요.

나: 저 개는 우리 동네 \_\_\_\_\_지만 집을 잘 지켜요.

4 가: 연말에 일이 많아서 \_\_\_\_\_.

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 가: 오늘도 부장님께 혼났어요?

나: 네,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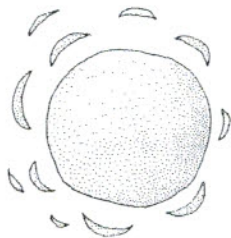
가: \_\_\_\_\_

나: \_\_\_\_\_



日

날 / 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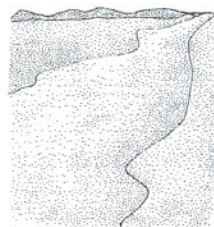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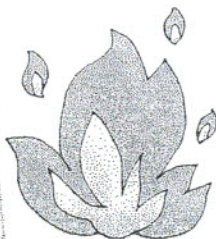


月

달 월

火

불 화



水

물 수

생각은 툭툭!  
한자는 쓱쓱!



서로를 멀리하는 한자예요.

火

水

불은 물을 싫어해요.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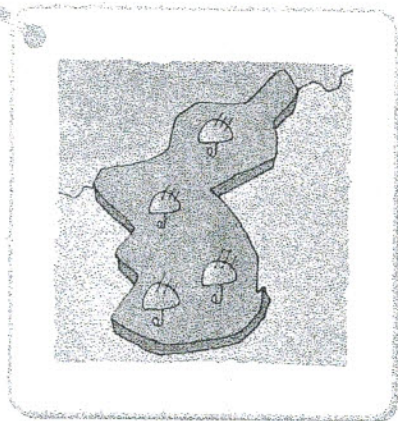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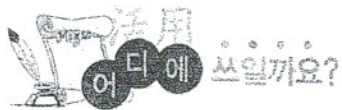
月

해와 달은 함께 일하지 않아요.  
해는 낮에, 달은 밤에 일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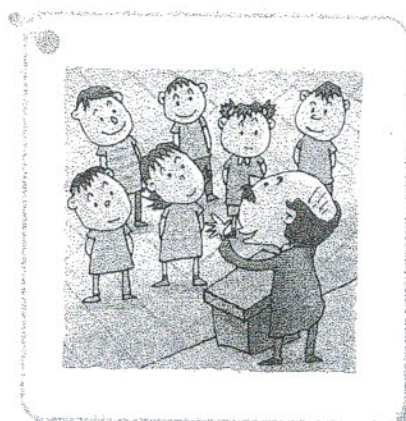
木

金

쇠가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나무는 쇠를 무서워해요.



날기 예보에서 내일은 비  
가 온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애국 조화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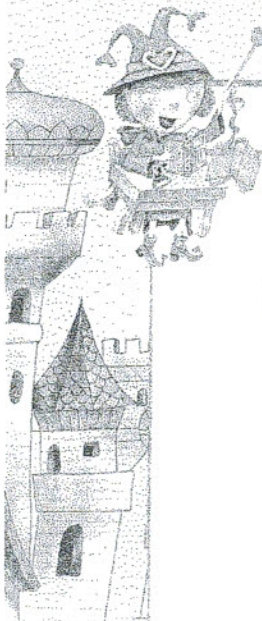
불이 나면 소화기로 불을  
끄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냉수를  
마셨습니다.



날	월	불	물
---	---	---	---



# 대단원

## 마무리

1.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한글**에서 골라 (     ) 안에 써 봅시다.

**한글**

火 木 月 土 水 日 金 山

(1)  (     )

(2)  (     )

(3)  (     )

(4)  (     )

(5)  (     )

(6)  (     )

2. 다음 **한글** 와 같이,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봅시다.

**한글**

月 ⇨ 달 월

(1) 金 ⇨ (     )

(2) 土 ⇨ (     )

(3) 弟 ⇨ (     )

(4) 水 ⇨ (     )

3. 그림에 맞는 한자를 찾아 이어 봅시다.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



(4)



아우



4.  에 있는 한자를 요일 순서대로 써 봅시다.



土 金 水 火 月

日 - ( ) - ( ) - ( ) - 木 - ( ) - ( )

5.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1) 4월 5일은 식물일입니다.

(2) 창민이는 목요일마다 수영장에 갑니다.

(3)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① 水

② 火

③ 木

④ 山

⑤ 月

고려 시대에는 고려청자를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요?

## 고려청자

‘고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손꼽히는 ‘고려청자’예요. 청자란 푸른 빛깔이 도는 도자기를 말해요. 고려청자는 자연스러운 색과 세련된 모양, 그리고 멋이 있는 문양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10세기부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중국의 청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고려 문종 때부터 고려만의 독창적인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12세기까지는 고려청자의 전성시대였어요. 하지만 몽골 침입 이후에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고려청자의 특징은 청자의 비색, 상감 기법, 무늬와 모양에 있어요.

비색이란 우리나라 고려청자에 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푸른빛을 가리켜요. 청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었지만 고려청자의 비색을 쉽게 만들어 낼 수는 없었어요.

대를 이어 전해지던 비법은 잦은 전쟁으로 맥이 끊기고 말았어

### ★ 고려청자의 기원지, 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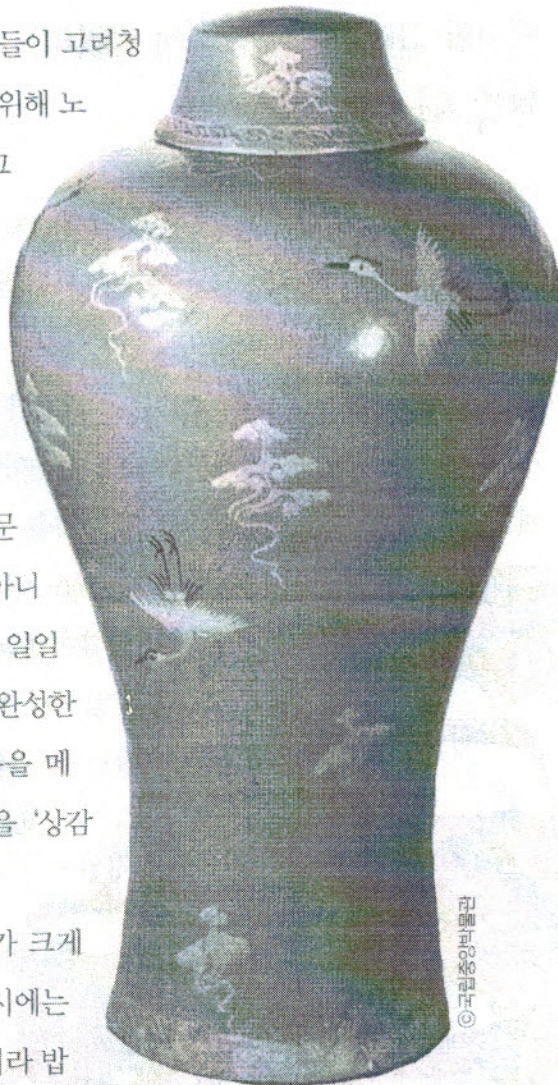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고려청자를 생산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청자 가마터 185개가 발견됐어요. 청자 가마터의 활동 시기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기후, 흙, 연료 등 청자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요, 이후 수많은 도예가들이 고려청  
자와 같은 비색을 내기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  
고 있지요.

고려 청자에는 구  
름, 학, 꽃잎 등의 아  
름다운 문양들이 그려  
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  
양들은 그려 넣은 게 아니  
예요. 도자기의 표면을 일일  
이 깎아내고 흙을 매워 완성한  
문양이지요. 이렇게 흙을 매  
워 문양을 만드는 기법을 '상감  
법'이라고 해요.

고려 시대에는 청자가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청자가 도자기뿐만 아니라 밥  
그릇이나 숟가락 등의 식기로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청자는 도장, 단추, 바둑판, 등의 일  
상용품과 기와와 같은 건축 재료로도 쓰였답니다.



민족문화상징  
100대

▲ 청자상감운학문배병

## 백자와 고려청자는 어떻게 다를까?

## 백자

조선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백자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을 강조한 조선 백자에는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이 담겨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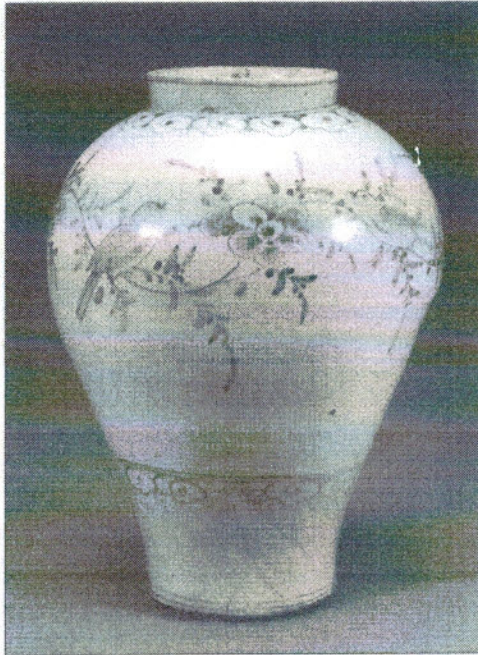
조선백자 중에는 문양을 넣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수수한 멋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간혹 문양을 넣더라도 붓으로 그려 넣어 매우 담백한 느낌을 주지요. 조선백자는 이처럼 꾸밈없는 멋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예요.

조선의 백자는 15세기경에 정교하고 단단한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백자는 중국의 백자보다 아름답다는 평을 들었지요.

세종 대왕 때에는 중국 황실로부터 조선의 백자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기도 했대요.

이처럼 백자는





도화백자조문호

▲ 청화백자화조문호

훌륭한 도자기였지만 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위로  
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서민들까지 누구나  
백자를 사용했거든요.

조선 시대 중기에는 백  
자가 아주 널리 쓰이는 도  
자기였어요. 독배기, 술병,  
밥그릇, 숟가락, 꽃병 등  
일상생활용품들도 백자로  
만든 것이 많았지요.

당시 일본은 우리의 도

자기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들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 도공들  
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도공들을 잘 대접했어  
요. 규슈 지방에 자리 잡은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크  
게 발전시켰어요. 일본의 도가지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임진  
왜란 때 잡혀간 조선의 도공들 덕분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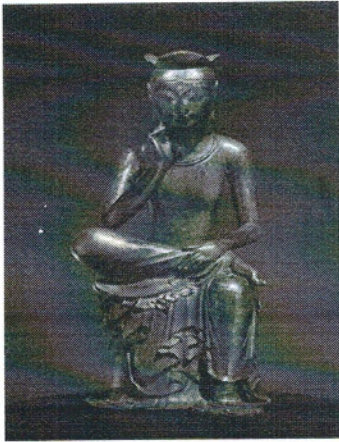
2018년 5월 5일

## 한라반 쪽지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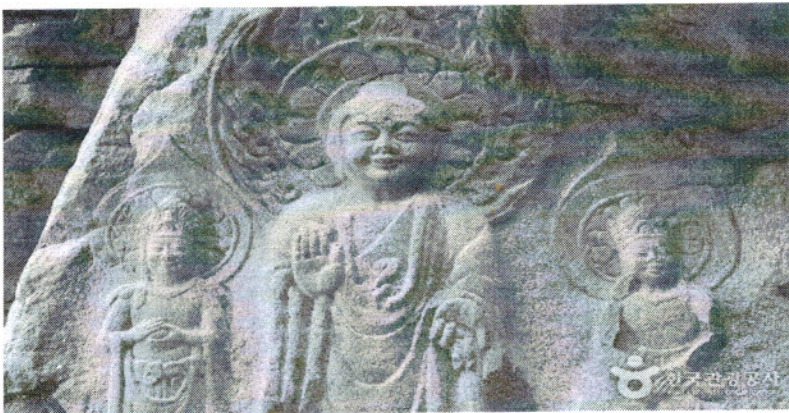
이름 :

▶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아래 사진에 나온 불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백제의 불상의 이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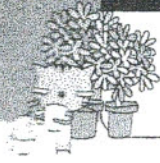


▶ 보기에서 골라 한자를 요일 순서대로 써 보세요.

金 土 木 日 火 月 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1\_ 가슴(이) 찡하다 12\_ 발(을) 벗고 나서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아프다 발을 벗고 나서다 팔짱만 끼고 있다

- 1 가: 친구가 많이 다쳐서 \_\_\_\_\_  
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 2 가: 요즘은 다른 사람의 일에 \_\_\_\_\_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모두 자기 일이 바쁘니까요.
- 3 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지하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대요.  
나: \_\_\_\_\_ 소식이네요.
- 4 가: \_\_\_\_\_ 멜로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세요.  
나: 글썄요. 저는 멜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 5 가: 그 영화배우는 \_\_\_\_\_ 눈물 연기를 정말 잘해요.  
나: 그래서 에릭 씨가 그 배우를 아주 좋아하는군요.
- 6 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 \_\_\_\_\_ 고 있을 거야?  
나: 알았어. 지금 할 거야.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다. 그런데...

해서 할머니를

고 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A Flower Sways and Blooms

Jonghwan Do

translated by MOJUDE

Where would a flower be that  
bloom without swaying?  
All beautiful flowers in this world,  
all swaying, have bloomed.  
Swaying, their stems have stood upright.  
Where would an unwavering love be?

Where would a flower be that blooms  
without the wind and rain?  
All colorful flowers in this world,  
all going through the wind and, have  
bloomed.  
In the wind and in the rain,  
they have bloomed warm-heartedly.  
Where would a life be without the wind  
and rain?